



대학주보

축제 기간 설국 승차권 리셀 발생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국제】서울캠 축제 날짜에 맞춰 양 캠퍼스 간 셔틀버스(설국버스) 승차권을 사재기하고 웃돈을 얹어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수업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설국버스를 이용해야 했던 학생들이 제시간에 수업 출석을 못 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국제캠 출발 설국버스 승차권이 첫차를 제외하고 모두 매진됐다. 해당 기간 서울캠에서 열리는 대동제로 국제캠에서 서울캠으로 이동하는 학생이 증가한 탓이다. 이에 설국버스 승차권을 사재기한 후 타인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지민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24) 씨는 매진으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했다가 승차권을 양도하겠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 씨는 “판매자가 제시한 승차권이 23일에 네 장, 24일에 세 장이었다”며 판매자가 사재기한 승차권이 최소 7장이라고 추측했다. 승차권에 웃돈을 얹어 판매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씨는 “정가 1500원인 승차권에 웃돈이 얹어진 금액을 제시했고 계좌 거래가 아닌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거래하려 했다”고 말했다.

오픈채팅 거래 시, 판매자의 익명이 보장된다. 국제캠 총학생회 박병준(국제학 2017) 집행위원장은 “직접 파악한 바로는 거래가 오픈채팅 송금으로만 이뤄져 판매자 특징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재기 사실은 설국버스에 보였던 빈자리로도 확인이 가능했다. 승차권은 매진이었지만 설국버스에는 빈자리가 있었다. 지난 23일 설국버스를 이용한 진성연(스포츠지도학 2022) 씨는 “승차권은 매진이었지만 빈자리가 남아 있었다”고 증언했다. 같은 날 배은총(프랑스어학 2018) 씨도 “승차권이 매진돼 구매하지 못했는데 밖에서 봤을 때 버스에 빈자리가 많이 보였다”고 말했다.

5면에 계속 →

 5월 14일 경희대 학생증 대여 (여자) 24일 축제 학생증 대여해드립니다! 학생증, 신분증 맞교환, 에타, 인포, 도서관 등 모든 도움○ 현장도움× 입장 못할시 책임× 10 + 5(보증금)에 대여해드려요~! open.kakao.com/o/sJIFjcrq 유평으로 연락주세요! ... 더 보기	 팔로우 ... 경희대 학생증 대여 (여자) 24일 축제 학생증 대여해드려요! 학생증, 신분증 맞교환, 에타, 인포, 도서관, 예상 질문 등 모든 도움○ 현장 도움, 입장 못할시 책임× 8(대여비) + 3(보증금)
 팔로우 ... 경희대 학생증 대여해드려요 저는 전적대라 쓸 일이 없어서 그냥 원하시는 가격대로 맞춰드릴게요~~ 경희대 홈페이지 인포21 개인정보 + 학교 정보 + 과목/교수 정보 다 제공 가능합니다 open.kakao.com/o/stoB9Rqg 들어오셔서 편하게 가격 제시해주시면 맞춰드릴게요!	 5일 경희대 학생증 대여, 경희대학교, 신분증 맞교환, 인포21 이하문의 (수, 목, 금) 작년 경희대 축제 입장 성공까지 가셨습니다. 대여 후 학교에 대한 질문 답변 가능, 축제 당일 입장 전까지 실시간 채팅 가능 안경 쓰고 통통한 체형의 중년발(아개 살짝 넘는) 여성분, 디엠주세요. 8만원

X(구 트위터)를 통한 불법 학생증 거래 사례가 70여 건 이상 발견됐다. 대여비는 10만 원을 상회한 경우가 많았고, 보증금 5만 원을 포함해 15만 원 이상 금액에 거래가 이뤄졌다. 학생증 거래는 외부인이 경희인존에서 아티스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함이었으며, 판매자는 인포21 아이디나 학교 관련 질문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진=X 캡처본)

축제 공연 보려고 학생증 불법 거래까지 학교 규정 위반 넘어 형법상 처벌도 가능

추찬호 기자 changlon1212@khu.ac.kr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서울】“경희대 학생증 대여, 안경 쓰고 통통한 체형의 중년발 여성분 연락주세요.”, “경희대 대동제 고학번 국캠 여성 학생증·신분증 대여, 대여비 10 이상 제시 + 보증금 3, 입장 시 학생회 질문에 답변 제공 가능”

서울캠 봄 대동제에서 아티스트 공연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경희인존’에 입장하기 위한 학생증과 신분증 불법 거래가 SNS상에서 약 70여 건 이상 발견됐다.

봄 대동제 아티스트 공연은 노천극장에서 이뤄졌다. 노천극장 좌석은 ‘경희인존’과 ‘프리존’으로 구성됐다. 경희인존은 무대 앞 스탠딩석과 시야가 좋은 곳에 위치해 우리학교 구성원만 입장할 수 있다. 반면, 프리존은 상대적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무대 측면부에 위치해 외부인 입장이 가능한 구역이다. 경희인존은 우리학교 구성원입

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 인포21 계정, 교직원증 등과 함께 본인의 학생증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지참해야 입장이 가능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은 SNS를 통해 자신의 학생증과 신분증을 외부인에게 돈을 받고 대여해줬다.

총학은 경희인존 입장을 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학생증, 신분증 확인과 교내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던졌다. 입학연도, 교양 수업이 진행되는 건물 이름, 신분증에 명시돼 있는 집 주소, 과 학생회실 위치 등의 질문이었다. 본인 명의 카드를 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증과 신분증 거래는 ‘X’(구 트위터)에서 빈번히 이뤄지고 있었다. 신분증의 보증금은 최대 5만 원, 대여비는 대부분 10만 원을 상회했다. 주로 같은 성별, 비슷한 인상을 가진 신분증을 선택해 거래하는 방식이었다.

실제 올라온 게시글을 보면 “학생회 인스타 보시면 학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입장 가능해요, 축제 기간 내내 대여 시 추가금 없이

보증금만 받습니다. 10만 원 쿨거래 합니다”, “경희대 신분증 + 인포21 문의, 작년 경희대 축제 입장 성공까지 갔습니다, 대여 후 학교 관련 질문과 답변 제공 가능, 축제 당일 입장 전까지 실시간 채팅 가능” 등 총학의 인증 방법에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거래자 간 연락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진행됐고 게시글마다 ‘거래 완료’라는 작성자 댓글을 통해 실제 거래가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학교 학생생활규정 제2장 5조에 따르면 학생은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유치하거나 변조할 수 없다. 하지만 학생지원센터 강준구 행정차장은 “대학은 개인 간의 불법 거래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쉽지 않으며 정황을 포착하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징계가 이뤄지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학생증과 신분증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이

므로 형법상 처벌도 가능하다.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형법) 교수는 “타인이 학생증을 빌려서 이용하는 경우는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 원 이하의 벌금) 및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다”며 “신분증을 빌려서 이용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37조 1항 위반(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염지윤(영어영문학 2024) 씨는 “학생 양심에 맡기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증 거래를 통해 경희인존에 입장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분 확인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 같다”며 “입장 시에 얼굴과 신분증, 학생증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학은 학생증 불법 거래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